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26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00.00원 (+3.00원)

KOSPI
5,642.21 (+88.29, +1.59%)

KOSDAQ
1,159.55(+38.11, 3.40%)

국고채 10년 금리
3.859(+0.02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방위산업	KF-21, 꿈★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채운샘, 안도현]

Global Asset Strategy

하나채권	1990년 유가 쇼크 복기: 2분기 금리 변곡점을 찾아서 [박준우]

기업분석

오이솔루션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했다 [김홍식]

산업분석

통신 장비	이번엔 길게 많이 오릅니다 [김홍식]

글로벌리서치

스틸다이내믹스	기존 철강과 더불어 신사업 본격화로 성장 지속 전망 [박성봉]
미국 우주 산업	NASA는 달 표면으로, 기업들은 실적 궤도로 (우주 Pure-play 실적 점검) [김재임]

단기투자유망종목

S-Oil, 삼양식품, SGC에너지, 더블유씨피, 오이솔루션, 셀비온, 피에이치에이

하나증권

2026년 3월 26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방위산업

KF-21, 꿈★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3월 25일

한국항공우주(047810)
BUY | TP 230,000원 | CP 185,000원

대한항공(003490)
BUY | TP 32,000원 | CP 25,400원

2026년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한국

현존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뿐이다. 4세대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전투기 시장이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시장이며 동시에 기술력, 자금력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임을 증명한다. 약 26년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만들 수 있는 8번째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있다.

KF-21,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KF-21의 첫 번째 꿈은 양산이다. 올해부터 납품되는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며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은 2028년까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전망한다. 두 번째 꿈은 수출이다. KF-21은 현재보다 미래의 경쟁력이 더 기대되는 전투기다. 경쟁 기종들이 수 차례 개량을 거치며 초기형과는 다른 수준으로 진화해 왔듯이 KF-21 역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경쟁 전투기들과 달리 KF-21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수출 경쟁력은 가파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세 번째 꿈은 유무인 복합(MUM-T)으로의 진화이다. 유무인복합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시장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는 5/6세대 전투기와 무인전투기를 통합 운용하는 공중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로서 유인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탐지 범위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하면 장차 KF-21에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이식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가 무인기 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Top Picks: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을 Top Picks으로 제시한다. KF-21은 내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업사이클 구간에서 절대적인 영업이익 규모를 키우는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KF-21의 수출 성과가 업사이클의 길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양산 중인 중고도 무인기(MUAV)의 체계 종합 업체이며, 국내에서 무인기 플랫폼을 가장 다양하게 보유한 기업이다. 여객뿐만 아니라 방산/무인기 역량도 국내 Top Tier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탄탄하게 갖춰진 바. 저점매수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6년 3월 25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1990년 유가 쇼크 복기: 2분기 금리 변곡점을 찾아서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과거 유가 급등 사례 중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례에 주목 [도표 2]
- 당시 유가 급등 직후 기준금리 동결, 10년 금리 3주만에 70bp 급등, 주가 3개월 간 20% 급락. 이후 침체 리스크 커지자 급격한 인하와 함께 10년 금리 급락 및 주가 회복
- 2026년 3월, 10년 금리 40bp 상승, 주가 4% 하락. 고유가 속 긴축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추가 채권/주식 약세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 아직은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과거 유가 급등 사례는 '73, '79, '90, '08, '22년이 대표적이다 [도표 3, 4]. 그 중 1990년에 주목한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가 3개월 동안 130% 이상 급등했던 사례다. 여타 시기보다 현재와 닮은 점이 많음에도 1970년대 사례보다 주목도는 낮다. 이번 사태가 1990년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으나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은 [도표 1, 2]로 요약 가능하다. 1990년 미국 경제는 이미 1980년대 중후반 1,000개 이상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하면서 경기 둔화 및 신용 경색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가 $17/bbl에서 10월 $40/bbl로 급등했다. 이에 CPI 상승률이 4.4%에서 6.3%로 상승했다. 이미 취약한 경제에 유가 충격이 더해지면서 1990년 4분기 성장률은 +0.6% YoY로 하락했고 1991년에 역성장에 빠졌다. 이러한 유가 충격에 대응해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긴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유가 급등을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시적 세금 인상 효과로 간주하고 신용경색에 집중했다. 유가 급등 직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가가 정점을 찍은 10월부터 공격적으로 인하했다.

당시 **유가 급등 직후** 국채 10년 금리는 3주만에 약 70bp 급등했고, 주가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국채 금리가 유의미하게 하락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약 20% 하락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리 상승 충격과 그로 인한 위험자산 약세는 불가피했다. 그 **이후에는 침체 리스크와 기준금리 인하**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주가는 (침체 리스크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했다.

현재 시장 역시 **'일시적인 금리 상승 & 위험자산 약세' → '금리 반락, 위험자산 회복'**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유가 충격이 클 경우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물론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를 반영해 상승할 수 있다. 1990년과 비교하면 (고용 부진, 사모신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다. 2022년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까지 겹치며 통화정책 스탠스가 다소 긴축적이다. 이 경우 위험자산 약세나 실물경제 불안이 커지기 전까지 금리가 추가 상승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가격 조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경기 둔화에 따른 인하 기대가 재형성되면서 금리 반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2분기 중 금리 하락 전환을 포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 03월 2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오이솔루션 (138080)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60,000원(상향)
현재주가(3.25)	41,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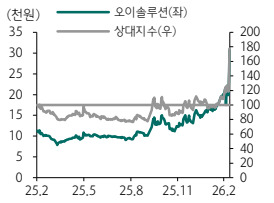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59.55
52주 최고/최저(원)	41,600/7,890
시가총액(십억원)	508.6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12,22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14.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4
외국인지분율(%)	5.04
주요주주 지분율(%)	
박찬 외 3 인	22.7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7.3	95.1
영업이익(십억원)	(13.9)	4.3
순이익(십억원)	(15.1)	1.9
EPS(원)	(1,399)	(8)
BPS(원)	5,350	4,45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46.0	32.0	57.3	120.9
영업이익	(31.1)	(30.4)	(15.8)	7.7
세전이익	(29.5)	(32.0)	(27.2)	6.5
순이익	(33.8)	(33.1)	(27.3)	5.0
EPS	(3,183)	(3,118)	(2,526)	410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4.04)	(3.35)	(5.18)	101.46
PBR	1.19	1.34	2.76	8.43
EV/EBITDA	(5.72)	(5.55)	(17.69)	39.50
ROE	(26.11)	(35.71)	(45.05)	10.08
BPS	10,839	7,758	4,736	4,932
DPS	10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오이솔루션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0,000원으로 상향

오이솔루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 미국 주파수 경매와 AT&T 2,500억 달러 CAPEX 계획 등 통신 장비 투자 로드맵이 이미 구체화 됐고, 2) 국내외 주파수 경매와 장비 특성 감안시 대규모 프론트홀향 트랜시버 수요가 전망되며, 3) LD칩 내재화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내외 장비주 동향과 업황, 광에서 RF로 이어지는 수급을 감안시 전반적인 멀티플 리레이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타겟 PBR을 12배로 올리며 목표주가를 60,000원으로 상향한다.

주파수 경매와 LD칩 내재화 덕분에 역대 최고 영업이익 경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는 오이솔루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주파수 경매와 LD칩 내재화를 통한 이익률 개선을 감안하면 그렇다. 2025년 매출은 5G 경매가 진행중이던 2019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참고로 고대역폭으로 갈수록 커버리지 범위가 좁아져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데 비해 실제로 설치된 5G 전용 기지국은 LTE 대비 10~30%로 추정된다. 그런데 6G용 주파수는 커버리지가 5G보다도 좁다. 게다가 피지컬 AI에 필요한 초저지연성까지 감안하면 5G-SA/6G 전용 기지국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 때는 2019년보다 더 많은 프론트홀향 트랜시버 수요가 발생하며 매출이 대폭 회복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외부 매입한 LD칩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내재화에 성공했다. LD칩의 원가 비중이 높은 만큼 자체 LD칩 사용시 마진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경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프론트홀향 트랜시버 실적 전망 감안하면 아직 주가 대세 상승 초입에 불과합니다

최근 오이솔루션이 서버용 1.6T 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하며 AI-광 수급에 본격 노출됐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한 탓에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가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 장비 업체의 전형적인 주가 양상과 오이솔루션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아직 주가 상승여력은 충분하다. 장비 업체는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한다. 오이솔루션은 19년 1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저점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던 것을 보면 확인된다. 그렇다면 현재 오이솔루션 주가가 저점 대비 3~4배 올랐고, PBR도 당시 고점보다 높은데 상승 여력이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5G SA에서 6G로 연결되는 빅사이클 감안하면 2019년을 능가하는 호재란 판단이다. 즉, 지금은 주가 대세 상승의 초입 국면에 불과하고,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쯤에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늦어도 올해말에는 국내외 신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테니 그 전에 대규모 프론트홀향 트랜시버 수주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는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

2026년 3월 26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이번엔 길게 많이 오릅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25일

쏠리드(050890)
BUY | TP 20,000원 | CP 15,91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00,000원 | CP 88,60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 TP 60,000원 | CP 45,6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33,20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28,000원 | CP 14,800원

우리넷(115440)
BUY | TP 15,000원 | CP 12,87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80,000원 | CP 70,6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상향) | CP 41,6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6,45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5G SA에서 6G까지 연결, 2028년까지는 이번 주가 상승 추세 이어질 전망

외신에 따르면 얼마전 Powering 6G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2029년 출시를 목표로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3개의 6G 상용 디바이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6G 표준 제정 흐름을 감안하면 6G는 빨라야 2029년에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ITU 표준 제정 전 상용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3GPP 논의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프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2027년 통신장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3.5G에서 4G로 이어지던 당시와 상황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초 예상대로 2027~2028년도엔 6G Ready 장비가 본격 도입되고 2029~2030년에는 6G 전용 장비가 채택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5G SA에서 6G로 연결되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한국/일본 수혜까지 진행될 전망, 공급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 커

아직까지 미국 외 선진국들은 5G SA 도입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다. 사업자도 공격적 CAPEX를 집행한다고 밝힌 업체는 AT&T에 불과하다. 하지만 5G SA 확산 추세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버라이즌이 가만히 관망할 리가 없고 한국/일본도 그냥 지켜만 볼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AI의 실패로 피지컬 AI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네트워크 발전의 도움 없인 피지컬 AI 성공도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5G SA에서 6G로의 이동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공급 상황도 양호하다. 통신장비 업계에서 업종 전환한 업체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EU/일본/한국에선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가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이 본격 확장된다면 4G 당시 NXP, 5G 당시 KMW 이상의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글로벌 SI들의 국내 아웃소싱 벤더 선정 뉴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현 주가 움직임 감안 시 선발주는 5G 초창기보다 더 큰 상승 폭 기록할 전망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본격적인 실적 호전 양상을 나타내려면 올해 연말이나 되어야 할 전망이지만 주가는 이미 2~15배나 오른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주가 사이클은 크고 높게 나타날 공산이 크다.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도 6개월은 남았는데 벌써 주가 상승률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2027~2030년까지 글로벌 통신장비 투자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5G 투자가 적었기에 2027~2028년 5G SA 투자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으며 2029~2030년까지는 6G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미국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2019~2022년 5G 투자 사이클 대비 전방 시장이 클 수 밖에 없고 국내/일본이 가세할 시 투자 기간도 길게 나타날 것이란 점도 변수다. 아마도 2025년부터 이어진 이번 통신장비 상승 사이클은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시세 분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업체들이 텐베거로 도약할 것이며 선발주들은 그 이상의 수익률 달성이 예상된다.

2026년 3월 26일 | Global Equity

스틸다이내믹스(STLD. US)

기존 철강과 더불어 신사업 본격화로 성장 지속 전망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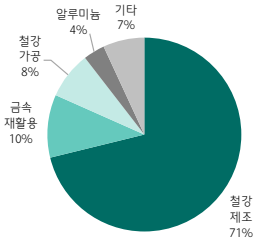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93.09 USD
CP(3.24)	169.7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채광
홈페이지	www.steeldynamics.com
시가총액(십억USD)	24.6
시가총액(조원)	36.9
52주최고/최저(USD)	208.47/103.17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1.75
블랙록	8.4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1.1)	24.4	32.6
상대	(6.2)	25.7	19.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7,540	18,177	21,106	21,751
영업이익	1,943	1,476	2,663	2,974
순이익	1,537	1,186	1,954	2,220
EPS(USD)	9.9	8.1	13.6	15.7
EPS(YOY, %)	(32.3)	(18.3)	68.9	15.0
ROE(%)	17.3	13.3	20.1	19.8
PER(배)	11.6	21.0	12.5	10.8
PBR(배)	1.9	2.7	2.4	2.1
배당률(%)	1.4	1.2	1.2	1.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4Q25 비수기 영향과 정기 보수로 인한 판매량 감소

4분기 스틸다이내믹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1억달러(YoY +14.0%, QoQ -8.6%)와 3.1억달러(YoY +30.6%, QoQ -38.9%)를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판재 공장의 정기보수 지연으로 인해 철강제품 출하량이 330만톤(YoY +9.4%, QoQ -8.6%)에 그쳤다. 원재료인 스크랩 가격이 하락했지만 ASP 하락폭이 이를 상회하며 스프레드가 소폭 축소되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3.2억달러(YoY +95.2%, QoQ -35.3%)를 기록했다. 철강 가공품 출하량 또한 13.8만톤(YoY -5.5%, QoQ -9.2%)으로 감소하며 해당 부문 영업이익은 9,100만달러(YoY -35.9%, QoQ -35.3%)로 축소되었다. 한편, 2분기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한 알루미늄 부문은 -4,700만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을 축소했고 EBITDA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 철강 사업부 ASP 상승과 판매량 확대 전망

11월부터 미국 내 철강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유통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스틸다이내믹스의 1분기 철강제품 ASP 또한 상승할 전망이다. 견조한 미국 내수와 더불어 수입재 점유율 하락세를 고려하면 판매량 확대도 기대된다. 철강 가공품 부문 역시 상반기까지 수주를 확보한 상태로 1분기 견조한 판매가 예상된다. 이는 곧 전방인 철강제품 수요 창출로 이어져 철강 부문 가동률을 높이고, 전체 고정비 절감에도 일부 기여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1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견조한 철강 내수와 신사업들의 본격적인 이익 창출 예상

2026년에도 리쇼어링과 인프라 및 건설 수요 호조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텍사스 소재 Sinton공장(연간 300만톤 규모의 도금 및 컬러강판)은 지난해 램프업(Ramp-up) 완료 이후 발생했던 품질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올해는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스틸다이내믹스는 호주 SGH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철강사 블루스코프 인수 타진 중으로, 거래 성사 시 블루스코프의 북미 철강 사업부를 인수하여 외형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신규 주력 사업인 알루미늄 판재 공장은 지난해 6월 상업생산을 개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추가 압연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가동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알루미늄 판재 시장은 140만톤 규모의 공급 부족 상황으로 수입산에 대한 관세가 50% 부과 지속 가정 시, 미국 내 알루미늄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뿐만 아울러 2025년 9억 100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전년대비 9% 증액된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주식

2026년 3월 25일 | 산업분석

미국 우주 산업

NASA는 달 표면으로, 기업들은 실적 궤도로 (우주 Pure-play 실적 점검)

우주 업황 포커스: NASA 달 표면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 전환, 수혜주 찾기

NASA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개발을 중단하고,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집중하는 아르테미스 수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간 달 표면 인프라 구축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1단계(2026~2028년)는 CLPS(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임무 빈도를 늘려 달 남극 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단계(2029~2031)는 대형 화물 착륙선을 투입하여 통신, 내비게이션, 전력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대비 개발을 간소화한 LTV(달 지형 차량)와 표면 이동용 소형 드론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달 표면 착륙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LPS 관련 수혜주는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이며 2단계부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소화된 LTV 입찰에서는 기존 타당성 연구 단계에 선정된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루나 아웃포스트(비상장), Astrolab(비상장)이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 표면 인프라(통신, 전력, 건설) 구축 관련해서는 로캣랩(RKLB), 레드와이어(RDW) 등이 수혜가 기대된다.

우주 Pureplay 대표 4종목 실적: 일부 일정 지연에도 기대치 상회하는 성과에 주목

로켓랩(RKLB)은 2025년 21건의 기록적인 발사 달성, 2026년 이미 30건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SDA(우주개발청)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우주 시스템 사업부 2026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38%로 전망했다. 중형 로켓 Neutron 발사 시기 연기(26년 4분기)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중형 로켓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AST 스페이스모바일(ASTS)**은 상업 서비스 외에 정부 계약이 2026년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2027년에는 상업 서비스 완전 가동과 정부 매출 확대로 매출액이 10억 달러(컨센 7.6억)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제조 속도를 가속화하고 발사에 성공한다면 D2C 상용서비스 가동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래닛랩스(PL)**은 지정학적인 환경과 주권적 우주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Defense & Intelligence 사업부의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FY26년에 조정 EBITDA와 FCF 지표가 연간기준 처음으로 흑자 달성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은 Lanteris 인수 효과가 기대치를 상회하여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9~10억 달러로 제시, 컨센(7.2억)을 크게 상회했다. Lanteris 인수로 실적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저궤도/중궤도/정지궤도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수주 기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NASA가 CLPS 미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LUNR의 본업 관련 수주 기대감이 2026년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기업들의 최근 실적발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인 수주 획득과 강력한 매출 성장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미국 우주 산업과 주요 Pureplay 종목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3/23	111,800	113,300	1.34%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삼양식품 (003230.KS)	3/23	1,151,000	1,216,000	5.65%	• 밀양 2공장, 작년 12월부터 용기면 포함한 6개 라인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 추가 생산 기지 건립 가능성 + 소스 및 신사업 기대
SGC에너지 (005090.KS)	3/23	62,500	62,000	-0.80%	• REC 확대, 구역전기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으로 2030년까지 이익 성장 모멘텀 뚜렷 • 전체적인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
더블유씨피 (393890.KQ)	3/23	13,230	13,500	2.04%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오이솔루션 (138080.KQ)	3/23	33,900	41,600	22.71%	• AT&T 2,500억 달러 역대 최대 CAPEX 계획 발표, 망 투자 논리 구체화되는 중 • 수급이 서버향 트랜시버에서 프론트홀향 트랜시버로 본격 확장 진행 중
셀비온 (308430.KQ)	3/23	30,900	30,700	-0.65%	• Lu-Pocuvotide가 임상 2상에 성공, 2026년 조건부허가 신청 및 3상 진행 예정 • 2월 학회에서 부족했던 데이터(OS, Mpfs)를 5월, 6월 학회나 파트너링을 통한 공개 기대
피에이치에이 (043370.KQ)	3/23	12,630	12,730	0.79%	• P/E 4배 후반,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75%, 배당수익률 3.3%, 자기주식 7.0% 보유 • 2026년 미국 및 인도 법인의 확대로 5% 성장할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0%	+3.46%p	+55.66%	+23.1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9	98,000	102,600	4.69%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3/9	353,500	342,000	-3.25%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5,800	3.41%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RF머트리얼즈 (327260.KQ)	3/9	51,900	70,600	36.03%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49,400	0.07%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32,000	6.67%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7,900	18.54%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89,000	57.6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95,000	52.84%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85,000	61.71%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3,300	36.51%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2.84%	+0.36%p	+32.84%	+0.3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7,880	-5.7%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745	-9.3%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5,195	-0.7%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005	53.9%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6.24	0.6%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60.84	33.3%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4.59	16.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4.23	11.6%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일본 2월 전년대비 전국 CPI (1.30%, 1월 1.50%) ▪ 유로권 3월 전월대비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 (51.4, 2월 50.8) ▪ 유로권 3월 전월대비 S&P 글로벌 종합 PMI (잠정) (50.5, 2월 51.9)	▪ 미국 3월 3주차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E --)	▪ 미국 3월 3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E --)	
3.29	3.30	3.31	4.1	4.2	4.3	4.4
		▪ 일본 2월 실업률 (E--, 1월 2.7%) ▪ 중국 3월 제조업 PMI (E--, 2월 49)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잠정) (E--/--, 2월 0.6%/1.9%)	▪ 한국 3월 전년동기대비 수출 (E--, 2월 28.70%) ▪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2월 52.1) ▪ 미국 3월 ADP취업자 (E--, 2월 63K) ▪ 미국 2월 전월대비 소매판매 (E--, 1월 -0.20%) ▪ 미국 3월 ISM 제조업 (E 52.2, 2월 52.4)	▪ 한국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0.3%/2.0%) ▪ 미국 2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3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E 51K, 2월 -92K) ▪ 미국 3월 ISM 서비스 지수 (E 55.5 2월 56.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